

# 기 념 사

정 윤 조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부산경남지부회장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망의 90년대를 맞이하여 대한이비인후과 부산경남지부회에서 “임상이비인후과” 학술지를 발간하게 된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본 학술지 발간에 즈음하여 본 회를 위해서 아무런 공헌을 한 바 없는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고 한편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이비인후과 부산경남지부회는 약 30여년전 부산대학교 의과대학개교와 부산대학교병원 개원이 효시가 되어 대학에 개설했던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발전을 거듭해서 이제는 회원수가 120여명에 이르고 질적인 면에서도 크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또한 본 지부회의 운영도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전국 어느지회 못지않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국내에는 대한이비인후과학회가 발달되고 있으나 순수한 학술지이고 한정된 지면관계로 우리 회원님들의 논문이나 기타 다른 글을 마음대로 실을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아쉬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현재는 모든 분야가 급속도로 발전하며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사들도 시대에 병행하여 낙후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될 것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그 분야에서 손을 떼는 순간까지는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습득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개원하시는 의사들은 자칫하면 자기만족에 빠지기 쉽고 학문적인 면을 소홀하게 되고 멀어질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때 본 학술지가 발간되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자극을 주는 활력소가 된다면 본 학술지발간의 취지가 더욱 돋보일 것입니다.

무슨일이든 첫술에 배 부를수 없는 법. 오늘의 창간호가 회원님들에게 만족감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내용이 충실하고 값진 학술지가 되어서 우리 회원은 물론이고 전국이비인후과 의사들의 사랑을 받는 학술지가 되고 나아가 세계적인 학술지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들의 학술지를 아끼고 사랑해서 잘 키워 나갑시다.

끝으로 창간호가 나오기까지 각별히 애를 쓰신 이종담 교수님과 편집위원님들과 원고를 보내주신 여러분에게 전회원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